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야 한다

캔사스 한인성당, 중남부 성령 봉사회 초청해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가져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을 마친 후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정경석 신부와 함께했다.

【캔사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주영길 토마스 신부)는 중남부 성령 봉사회(지도신부 정경석 프란치스코)를 초청해 6월 28일(금) 오후 7시부터 28일(일) 오후 1시까지 2박 3일간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로 피정을 가졌다.

캔사스 본당 전례부와 평협 그리고 중남부 성령 봉사회의 봉사자들이 이번 피정을 진행

했고, 첫째 날은 미사와 강의, 둘째 날은 찬양 강의, 치유안수 그리고 마지막 날은 미사로 마무리되었다.

3년 만에 피정을 하게 된 캔사스 본당 신자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3일간 어린 학생부터 어른신까지 50여 명의 전 신자가 참여해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정 신부는 강의를 통해 "참된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

기는 것이니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살아가자.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창세기를 비롯 성경의 여러 말씀을 비유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야 한다. 새 하늘 새 땅은 나 자신 변화의 시작이며 그로 인해 하느님에게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면 지금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고 이 땅이 새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참가자는 "정 신부 강의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하고 싶다.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행했던 것이 얼마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 느낀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

이번 피정을 준비하면서 기상악화로 인해 중남부 봉사자들이 캔사스 본당에 도착하기까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캔사스 본당의 전 신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참여로 봉사자와 참가자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며 피정을 마무리 했다.

기사/사진 제공 : 박진연 스틸라



## 미혼모가 대물림되는 곳



설정선 수녀  
아르블레다 공부방, 페루

페루 리마시 신타로사주 아르블레다. 이곳에 첫발을 디딘 2010년부터 페루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대면하며 대한민국의 자녀로 낯선 땅을 살아온 나의 사고와 문화의 잣대로 이들을 바라보기에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곳 아르블레다에 전기가 공급된 지도 불과 몇 년 전이고, 물도 이곳에 하루 두 시간씩 들어 오기 시작한 것도 2년 전의 일이다. 이곳은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각지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 도심생활을 할 수 없어서 형성된 곳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도 그리 오래 일이 아니다보니 서로를 경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을이다.



아르블레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물림된 미혼모와 자녀들.

이런 마을에는 가정에서 쫓겨난 미혼모들이 살기도 하는데, 성장이 늦거나 약간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만나면 종교등부에 다니면서 미혼모인 엄마를 둔 아이들이 많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은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미혼모'라는 굴레는 어머니에서 다시 자녀로 이어지기도 한다. 14살, 이제 종교등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여학생, H의 누나는 배가 불러오자 학교에 가지 않는다. 가정방문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일인데, 처

음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다 몇 개월이 지나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있는 모습을 본다. 삼촌과 불과 한두 살 차이인 경우도 그래서 많다. 더욱 슬픈 현실은 이러한 일들이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한집에 사는 삼촌 가정도 결국은 그 삼촌들이 서로 부모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산다. 누가 아 빠인지 엄마인지 모르면서 맺어진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 구조는 이곳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이다. 더구나 이곳 아르블레다는 이주 도시 빈민이라서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이 세 명이 있어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처음 '미혼모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야지' 했던 내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방문하다 보니 결국은 온 동네를 다 다녀야 하는 상황들이었다... H네 집도 마찬가지다. H누나는 14살로 중등부를 다니다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살아간다. 집에는 출출이 동생이지만 그 동생들도 아버지가 다르다.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서는 H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밤이 구분될 리 없다.

그저 방 한 칸에 비닐 포장을 천장에서 내려 바람에 열량이 훤히 보인다. 방도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고, 모랫바닥을 드러낸 방바닥은 아이들에게 피부병을 주기에 적절하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아이들만 남게 되고, 밥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누나도 아이에게 줄 동정의 먹거리를 구하러 곧 손의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대물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보여진 부모의 모습과 똑같이 아이들은 오늘도 미래 없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서 있다. 아이들이 변화하면 이곳의 미래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 사랑을 심고 페루 아마존 강 섬마을까지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해외 선교단, 의료 및 봉사활동



성 정 바오로 성당 해외 선교단 미용 봉사자가 페루 뿌갈파 어린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주임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해외 선교단(단장 김정하 아 누아리오 신부)이 페루 단기선교를 무사히 마

치고 돌아왔다.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성 정 바오로 성당 해외 선교단은 6월 20일(토)부터 28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남미 페루의 뿌갈파 지역에 있는 공소 '성가정 본당'을 방문해 의료 및 각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4번째 방문인 이번 선교활동에서 봉사자들은 의료와 교육봉사에 집중했으며, 특히 의료봉사에는 양의사 2명, 한의사 3명 그리고 침술사 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1,500명이 몰려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약사 2명, 간호사 3명, 미용사 2명, 스페인어 통역사 1명, 공예강사 2명과 함께 청소년 8명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뿌갈파 선교에 참여했던 심정녀 안젤라는 "이번에 한인 의료진이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현지민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으며, 아마존 강 깊숙이 있는 섬마을까지 왕진을 다녀올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며 이번 봉사활동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 : 홍알벗 알버트



### 고백

慕恩, 최춘자

당신이 아파 나도 아프다고 차마 그렇게 말하진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등을 후려치는 장대비 걸음걸음마다 멎드는 가시밭길 악몽으로 이어지는 벼랑길 현기증으로 어지럽지만 울먹울먹 당신의 가슴 무너지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조금만 견뎌줘요. 저물녘 강물 가에 번지는 쓸쓸한 바람처럼 생활이란 슬픈 흔적이네요.

**PBC 미주평화신문**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E-mail: editors@peacetimesweekly.org

The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 (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Week & Korean Thanksgiving) for \$130 per year by The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s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구독료: 1개월 \$13.00 / 1년 미국 \$130.00 (USD) 캐나다 \$300.00 (CAD)

Publisher: Rev. Young Chun Kim  
발행인: 김영춘 베드로 신부

Tel. (718) 762-6500  
Fax. (718) 762-5108

미주평화신문 (USPS 10804)은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이며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평화신문은 매주 발행하는 주간지이며 설날, 여름 휴가, 추석 3회를 휴간합니다.

## 유럽성지 순례 전문 마리아 투어와 함께 아는 유럽 성모성지 한국성지 순례

본당 및 단체 성지순례 상담 환영합니다.



메주고리에 제26차 유스 웨스티발 순례 1. 이태리+메주고리에 10박11일 순례 2. 메주고리에 9박10일

일 정:  
순례1 : 7월28일(화) - 8월7일(금)  
항공료 + \$1,399  
순례2 : 7월29일(수) - 8월7일(금)  
항공료 + \$1,090  
영어권 지도신부님과 함께



파티마 성모발현 98주년 유럽 성모성지 순례 16박17일 (\$3,900)

일 정: 10월10일(금) - 26일(월)  
순례지: 폴레토, 아빌라(테레사 성녀 탄생 500주년 전대사), 살라망카, 파티마,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가라반달, 로올라, 산세바스티안, 루르드, 사라고사, 몬세랏, 바로셀로나, 드브로부닉, 메주고리에



스페인 성지 순례 8박9일 (\$2,800)

일 정: 10월10일(토) - 18일(일)  
순례지: 폴레토, 백설공주성, 아빌라(테레사 성녀 탄생 500주년 전대사), 살라망카, 파티마,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가라반달, 로올라, 산세바스티안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10박11일 (\$2,900)

일 정: 문의  
카이사리아, 카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에페소, 체스메, 하오스, 피레오스, 코린토, 아테네, 데살로니카, 필립비



PO Box 104 Palisades Park, NJ 07650  
e-mail : MariaTour121@gmail.com

전화 : (212) 594-7773  
셀폰 : (646) 808-7322

담당 : 박 아그네스 (아네스)  
카톡 : agnespark131